불자 세상보기

문화재의 부실복원과 대한민국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연구원장

일찍이 젊은 시절부터 경주박물관에서 신라문화를 연구하여 왔던 나는, 자연히 지방의 역사유적이나 문화재가 어떻게 훼손하여 가는지 목격하여 왔다. 예컨대 감은사 터 전체가 온통 뒤집히는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고 고함 쳐서 인부들을 물리친 일이 있었다. 또 하나의 예는 경주 분지의 서쪽 산인 선도산(仙桃山)의 낙조는 유명한 경주 팔경(八景) 가운데 하나인데, 어느 날 바라보니 그 아름다운 산 중턱에 벌건 흙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알아보니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계명대학교에서 거대한 규모의 대학병원을 짓는다는 것이었다.

급히 절대반대 의견을 신문에 강력하게 써서 저지시킨 적이 있다. 또 10년 전에 석굴암과 불국사, 문화재청과 관련 어용학자들이 담합하여 석굴암 복제를 현 석굴암 바로 밑 100미터 지점에 세우려는 작업이 다 이루어져서 기공식을 거행한다는 기사를 읽고 놀라 반대의견을 신문에 기고한지 1년 만에 저지시킨 적이 있다. 이미 오래 전의 일들이고 내가 관련한 것만 그러하니 우리가 모르고 진행되고 있는 부실공사는 그 얼마나 많을 것일까??

그런데 경제가 계속 성장하며 동시에 문화에 정치바람이 불면서 이른 바 문화유산 복원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불교미술은 특정 종교의 문화가 아니라 한국문화의 총체이다. 물론 올바로 이루어지는 불사도 있겠지만 여러 지역의 고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불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복원이 아니라 파괴였다. 기둥이야 바로 세우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단청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등한시하는 것이 바로 단청이다. 요즈음 정치적 입지에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숭례문의 복원인데 그 부실공사는 바로 눈에 금방 띠는 '들뜨고 있는 단청'에서 입증되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은 부분은 오죽하겠으며, 국보 제1호라하여 관심이 가장 큰 문화재의 복원인데, 하물며 지방의 문화재 복원은 오죽하겠는가! 숭례문은 이미 문화적 생명이 다한 복제이지 복원도 아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문화재의 부실공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예컨대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禪雲寺 懺堂庵 大雄殿)은 보물 803호로 유명한 사찰규모의 암자이다. 두 해 전에 그 건축을 조사하러 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단청을 새로 했는데 아마도 단청을 처음 해보는 무지한 사람의 솜씨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담함을 느껴, 종무소에 스님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놈이 단청했는가!' 하고 소리친 적이 있다.

물론 총체적 부실공사지만 이 글에서는 단청만을 예를 든 것뿐이다. 그러면 어떤 해법이 있는가? 우선 문화재청의 정책 부재이다. 아무리 지방이라 해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문화재청의 직원들의 소양교육을 철저히 실행해야 문화정책을 올바로 세울 수 있다.

그리고 문화재전문위원들과 문화재위원들이 청렴결백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단청만 하더라도 올바른 단청장(丹靑匠) 한 사람이 없으며 가르칠 장인도 한 사람 없다는 것이다.

즉 각 분야의 장인들의 양성이 필요한데 그러한 학교가 없다. 부여의 한국전통문화학교 같은 것을 과감히 개혁하여 지금이라도 그런 특성이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런데 전승해 줄 올바른 스승이 거의 없다는 것이 더 큰 비극이며 학문적으로 가르칠 교수도 드물다.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총체적 부실은 문화유산의 총체적 부실공사로 이어진다. 문화가 허물어지면 대한민국의 경제도 허물어진다는 진리를 모르는가?

요즈음 경주에서 월정교(月精橋) 복원이 한창이다. 고증 없이 기본구조가 결여된 괴물 같은 신라시대 다리의 복원이다. 또 거액을 들여 불가능한 황룡사 복원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전국적인 부실공사를 바로잡을 예산도 부족하고 더구나 고증자료도 거의 없는데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황룡사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사업비 2900억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이다.

대선공약사업이라고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130억원을 들여 황룡사 연구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끌어갈 연구원들이 있기는 한가. 복원공사에 참여할 건축설계사무소들이 많은데 그 사무실 직원들과 어용학자들이 점령하여 부실공사 될 것이 뻔하다. 역사상 한 번도 올바로 보존하거나 복제하거나 복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문화유산 부실공사는 원전의 부실공사와 같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문화유산 부실공사를 유도한 공무원이나 학자들 대부분 가운데 누가 엄격히 지적하고 공과를 따질 것인가? 원전비리(原電非理)와 같은 문화비리(文化非理)라면 엄격히 정부조직 구조의 총체적 범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범계불감증, 대책은

다시 불교계가 스님들의 범계 행위로 시끄럽다. 종단이 지은 대규모 연수시설에 공공연하게 술자리를 가졌다. 이들 중에는 조계종 지도층인 중앙종회의원이 3명이 포함돼 물의를 빚고 있다. 잇달은 범계행위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불자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대책을 들었다. 〈편집자 주〉

엄중한 처벌과 계율 현대화 필요

이도흠
한양대 교수

연이은 범계행위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백양사 도박사건에 대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다.

이 같은 범계행위가 계속 벌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와 디지털사회로 이행하여 욕망을 과잉으로 추구하는 사회 탓이다. 승가도 재가도 스스로를 기반하고 있는 사회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불교 내의 감시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계율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내 안의 부처님, 집단의 시선, 처벌인데 지금 한국불교에서는 세 가지가 모두 무너졌다.

아무리 중대한 범계행위를 해도 언론에만 노출되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고, 집단의 시선이 외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쪽으로 작동하고, 내 안의 부처님은 이미 오래 전에 떠나셨다.

계율과 현대사회의 상황이 어긋나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계율과 청규, 종헌 · 종법이 워낙 방대해 실질적 실천을 이룰 수 있도록 계율을 현대화해야 한다.

또한 처벌이 공정하고 엄정해질 필요도 있다. 청규를 10번, 20번 만들어보았자 엄중한 처벌이 병행되지 않으면 종잇장에 지나지 않는다.

지도층 승려부터 일벌백계하고, 계율을 현대화하고, 집단의 시선이 계율을 지키는 쪽으로 전환하도록 승풍을 진작하는 문화운동이 있어야 한다. 재가불자들도 범계 행위를 한 승려에게는 공양을 바치지 않는 주체적 결단을 해야 한다.

지킬 수 있는 청규를 제정해야

이자랑
동국대 HK교수

지난 도박사건을 비롯해 최근 잇달은 음주사건은 모두 지계의식이 부족해 발생한 것이다. 스님이 출가를 한 후에 수행에 대한 교육은 받지만 계율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육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왜 계율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이 생겨나기 어렵다.

율장을 2500년 전 인도사회에서만 필요한 법이라고 여겨서는 안된다. 율장의 주요 골자는 승단의 질서를 위해, 악행을 멈추고 참회하게 해 수행을 지속하게 하기 위함이다.

현재 조계종 종도들에게 작용하는 계율 시스템은 사분율, 범망계, 청규, 종헌 · 종법이다. 이들은 서로에 대한 모순을 가지고 있고, 그 양도 방대해 이들을 전부 실천하고 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된 시스템 안에서의 현대적 청규 제정은 필요하다.

현대적 청규 제정에 있어서 율장정신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사회와의 조화다. 일반인들의 가치관과 상식을 반영해야 한다. 일반인 시각에 근거해,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킬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상식 안에서 서로 지킬 수 있는 수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청규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청규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킬 수 있는 규범이 돼야 한다. 안 지켜도 그만인 청규와 법은 무용지물이다. 만들어진 규범과 제도를 꼭 지켜야한다는 의식과 이를 어겼을 경우 확실한 체벌이 이뤄져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社說

지계 회복과 청규 제정 서둘러야

잊고 있던 상처가 다시 떠오른다. 이번에는 음주가 문제가 됐다. 최근 중앙 일간지는 단독으로 조계종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벌어진 스님들의 술자리를 고발했다. 이 중에는 중앙종회의원 3명이 포함돼 있었다. 최근에는 다른 중앙종회의원이 조계사 인근 포장마차에서 여성과 술자리를 가져 공개 참회를 하기도 했으며, 여직원 성추행 발언으로 스스로 보직을 내려놓은 스님도 있었다. 약 한달 사이에만 불교계 지도층 인사인 중앙종회의원 5명이 범계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불교가 전반적으로 범계불감증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2012년 백양사 도박 사건으로 종단이 일대 홍역을 겪었고 이로인해 자성과 쇄신 결사를 천명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세간의 힐난에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계율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계를 경시하는 듯한 분위기가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제도와 스님 자신 안의 감시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진단도 나왔다.

이제라도 시급히 생각해봐야 할 과제는 시대에 맞는 청규 제정이다. 이미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에서 청규에 대한 최종본을 내놨지만, 공포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이제라도 지킬 수 있고, 지켜야만 하는 청규 제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규 제정을 통해 계율을 현재적 상황에 맞게 구성하고 불교 윤리를 정착해 우리 모두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작업도 함께 이뤄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스님뿐만 아니라 재가불자에게도 삶을 제대로 영위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적지 않는 전문가들은 빠른 변화가 없다면 이 같은 범계행위에 대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시대에 맞는 청규 제정이 시급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 행복 위한 힐링 투어 '스타트'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심리학의 전문용어인 '힐링(healing)' 이란 단어로 점령당하고 있다. '힐링' 바람은 광고, 문화센터, 뮤지컬, 음식, 여행 업계 등 각 분야에서 중심 마케팅 키워드로 떠올랐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내세웠던 웰빙과 휴(休) 바람을 뛰어 넘어 참으로 거센 바람이다.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중 · 고등학생, 취업난에 시달리는 구직자, 만성피로에 찌든 직장인, 은퇴를 눈앞에 둔 베이비 부머까지 그야말로 전 세대가 피곤과 스트레스에 허덕이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모든 세대에게 '마음의 위로' 가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요즘 불경기에 심신이 지친 고객들을 대상으로 잠시나마 마음의 휴식과 위안을 주고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인 '힐링캠프' 프로그램이 인기라고 한다. 인생, 가족, 관계, 미래 등을 주제로 주요 연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국민행복 힐링투어가 시작돼 화제다. 형식은 비슷한 것 같다. 이번 힐링투어에는 표교원장 지원 스님이 국민 힐링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직접 콘서트에 나서 4무량심을 주제로 강의도 하고 스트레스 비만 해소와 에너지 생성 건강법을 위한 3분 명상도 진행한다. 또한 행복명상 전문가인 마가 스님도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음악 감상도 이번 힐링 투어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다. 세계적인 공연장인 뉴욕 카네기홀 무대에 선 경험이 있는 소프라노 정행 스님이 '힐링 음악' 을 선사한다. 한마디로 집약해 명상과 법문, 음악 등이 이번 힐링 투어 콘서트의 주요 프로그램이다. 첫 투어에는 4백여명 정도가 참가했다. 적지 않은 숫자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힐링을 갈망하는 이들이 많다는 증거다. 우리 불교는 힐링을 위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장점을 적극 활용해 앞으로 온 국민에게 힐링투어 열풍을 일으키길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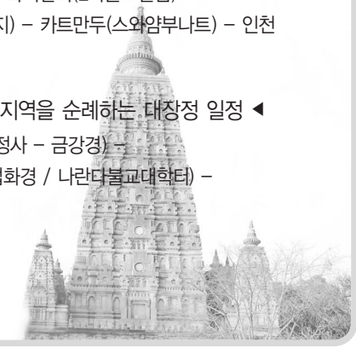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 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 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 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 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